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②

양면에 대한 깊은 이해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의 시선은 목적지로 빠르게 달려가려는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는 순간, 재빨리 물고 가는 것이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이때의 시선이란 '질주'의 가치가 실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잘못이 매우 크게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행자가 만들어내는 시선은 건물목을 지나가는 승용차에 집중될 것이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안전 또한 위협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선과 차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방향만 다

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을 구성하는 항목에 모두 '정(正, sammā)'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위치와 방향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최적의 가치'를 모색하는 일을 '올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팔리어 '삼마'에 내재되어 있듯이 그러한 노력이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팔정도에 내재된 두 번째 성격이 된다. 그러므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에 내재된 이러한 면모를 반영하면, '가운데 길'이라는 뜻의 중도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길' 또는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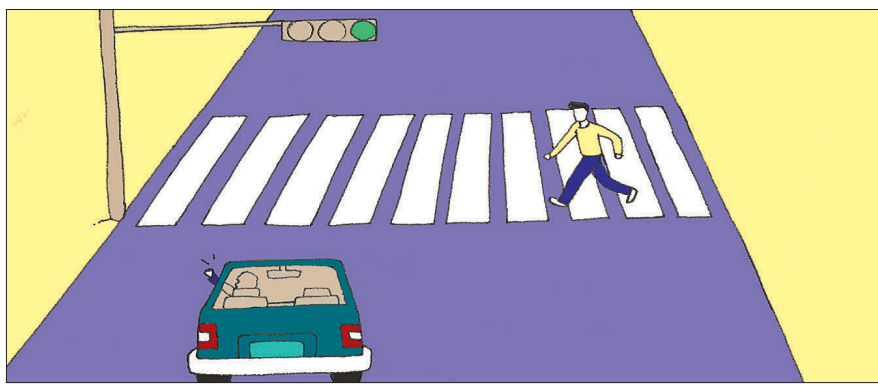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형성되는 의도와 가치 또한 달라진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선과 악, 빠름과 느림, 크고 작음 등의 판단도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위치와 방향이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에서는 이와 같이 실존에서 맞닥뜨리는 양면성에 주목한다. 바로 '서로 다른 시선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양면성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운데 길'(中道)이라고 부르는 실천의 방식을 제시하는 일차적인 이유이다. '가운데 길'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상적 토대는 자신의 감각기관에 포착되는 대상이란 '조건에 의해 발생된 것'(緣起)이라는 체계적 사유방식의 확립에서 나온다. 즉, 불교 안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연기적 사유방식이 중도적 실천방식의 토대가 되며,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연기적 사유는 그만큼 온전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 인식론과 실천론

의 양면성을 고려하는 태도이고, 나와 다른 위치와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가 특정한 그곳에 있다고 해서 올바른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절한 길'(中道)의 기초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의 판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실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이 바로 팔정도(八正道)이다. 그것은 '바르고 온전한 견해'(正見), '바르고 온전한 생각'(正思惟), '바르고 온전한 말'(正語), '바르고 온전한 행위'(正業), '바르고 온전한 생계활동'(正命),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지속적 노력'(正精進),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주의력의 일깨움'(正念), '바르고 온전하게 집중된 마음'(正定)의 여덟 가지를 가리킨다. 이제 [니까야] 경문에 의거하여 이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하자...

리더에게 聽하다

정우 스님 조계종 균종교구장

세상이 시끄럽다. 배임, 횡령 등 공공연하게 많은 이들의 사심에 의한 행위가 연일 지탄 받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중시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공심(公心)으로도 말할 수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공심이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2일, '공심'을 주제로 조계종 균종교구장인 아산 정우 스님(64)을 만나 스님의 생각을 들었다.

정우 스님은 10대 초반 통도사에서 출가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대한 도심사찰을 장려했다. 서울 강남서 가장 큰 절 중 하나로 꼽히는 구룡사를 1985년 창건한 이래 일산 최대 사찰인 여래사와 해외사찰 8개 등 20여개 사찰을 만든 도심포교의 주역이다. 스님은 구룡사와 여래사를 비롯한 대찰들을 모두 조계종 공찰로 등록했다. 그 이면에는 공동체 살림이란 '공심'이 있었다.

- 고양 여래사, 평택 자산사, 성남 장안사와 연화사, 인천 보명사, 대전 봉국사, 제천 운조암, 용인 법계선원, 미국 뉴욕의 원각사와 포틀랜드 보광사 등 스님이 손수 세우고 정성으로 가꾼 전법도량을 종단에 공찰로 등록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힘써 일군 사찰들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속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다. 시주자들이 보시금으로 내놓은 삼보장재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승가공동체의 것이었으니 내놓고 맡고 할 게 없는 것이었다. 더 늙으면 괜한 욕심으로 종단에 횡포를 부릴까 염려돼 정신이 온전할 때 결심을 세웠다. (웃음)

수행자의 덕목은 불일부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에 와서 사설사암이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사찰을 빼앗긴다 등의 말이 있지만 오히려 상좌들이 사찰을 잘 산다면 계속 꾸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못산다면 외부에서 개입이 있을 터이니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잘 살려야 하지 않겠나.

-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없는 이들이 더욱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채워 100개를 만들려는 욕망으로 가득찬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진실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허상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집착해 붙들려 있는 것이다. 집착에 얽매어 자유롭



정우 스님은... 1965년 통도사에서 흥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8년 통도사에서 흥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등 20여개 사찰을 창건했다. 조계종 9~12대 총회의원, 불교TV 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포교부문을 수상했다. 현재는 조계종 균종교구장 및 구룡사 회주로 있다.

지 못한 것이다. 소유한 것은 내놓지 못하지만 원력으로 이룬 것은 그 자체로 만족이나 대중에게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다. 공심이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실한 것이다. 승려로서 종단의 중지를 따르고 공유화된 살림을 살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지역살림에 이바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읍니다.

- 창건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

다. 스님께서 원력에 따른 것이라면 공심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찰을 창건하신 원력이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랐지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좋은 줄은 잘 몰랐다. 근대에 가니 부처님 법이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부처님을 군대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의정부 26사단 호국 황룡사와 호국 일월사를 군 생활하며 창건했다. 제대하자 월하 노스님, 벽안 노스님 등 대중들이 대중법회에서 새까맣게 젊은 저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과 볼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과 볼

- 과볼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품 : 휴대용 가방(과볼+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올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편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mm 15만원
[중] 110 × 80 × 160mm 20만원
[대] 140 × 95 × 200mm 25만원

■ 재질 : 청동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그것이 바로 ‘公心’입니다”

법상에서 법문하게 했다. 열린 사고를 가진 그분들이 후학의 울타리가 되어줘 그 기운으로 서울에 올라가 구룡사를 창건했다. 예전 큰스님들은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찰을 창건했다. 그런 모습을 본받고자 대중들이 부처님법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중포교는 승려로서 놓을 수 없는 과제이기에 내세울 것도 아니다.

- 그래서 일까요. 스님의 사찰은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것이 특징입니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때도 그렇고, 구룡사, 여래사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꾸몄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산문을 활짝 여셨는지요.

불교는 모든 대중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대중들을 반갑게 맞이 하지 못한다면 불교가 아닌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친절에서 나온다. 부처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하심과 겸손이 그 실천이다. 사찰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모두 그 일환이다. 사찰과 스님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대중도 불교로 다가오고 공동체적 삶이 된다.

- 통도사 석보박물관에도 하나 둘 씩 문화재를 기부해 현재 스님이 기부한 문화재가 수백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받거나 구입한 문화재가 꽤 된다. 그때 그때 소중한 성보를 만나면 본사인 통도사에 보낸 것이 벌써 35년이다. 기증은 많은 이들이 찾는 통도사에서 함께 보면 더욱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뤄졌다. 벌써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지정 받을 만한 성보들도 많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박물관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큰 사찰에서 보다 많은 대중들이 보나 얼마나 좋은가. 승려가 승려생활 동안 인연으로 모은 정재는 승가공동체로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본사인 통도사를 믿었고, 대중들을 믿었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때 구룡사 신도들과 함께 구성된 전담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당시에 밭과 논이 사찰 명의로 되지 않아 내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사후에 속도가 갈 위험이 있어 법인화를 추진했다. 영농법인이 만들어지고 도시사람들과 통도사 식구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 자금자축하게 됐다. 짐작속에는 매일수도 심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 2011년 인도의 고려사 불법매각을 막고 정상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도 각종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달라이라마 방한에도 앞장섰습니다. 스님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일에 동참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조계종이 공공공적은 댄 기구를 출범시켜 좋은 곳에 정재를 쓰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예전 같았

공동체 살림 강조

사찰 20여 곳 창건, 조계종 등록 통도사 영농법인 설립, 일반개방 “사회 병폐,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

소외계층 자비보시행 서원

짜장면·핫팩 등 군장병에 보시 각계 어려움 돕기에 적극 나서 “화합, 공유의 마음을 지녀야”



군장병들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정우 스님. 스님은 지금까지 군장병 2만여 명에게 짜장면과 핫팩 30만개를 보내는 등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북인도 성지순례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정우 스님. 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정우 스님은 2015년 11월 독립영화 ‘원효-춤추는 붓다’ 제작비를 지원했다.

군가 짊어지고 가야할 일이라면 그 짐을 스스로 없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중단 안팎에 많은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그것이 전체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해서다.

그런 취지에 구룡사와 여래사 신도들, 또 많은 대중들이 동참해줘 감사할 뿐이다. 지난해 동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처인 야침스를 갔는데 그 곳 상황이 정말로 열악했다. 올해는 야침스 화장실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군종교구장으로 특히 군장병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틈 날때마다 최전방 GOP까지 가고, 2013년 말부터 2만여 명의 장병들과 짜장면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군포교 또한 이 분야가 시급한 분야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병영생활이 되도록 불교가 장병들에게 비탄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이번에 부처님오신날에는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를 방문해 위문품인 ‘자비의선물’을 전달했다. 매년 자비의 선물 3만여개를 90여 부대에 보내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 직접 느꼈던 어려움이 원동력이다. 작업할 때 조금이나마 털 힘들라고 목장갑과 핫팩도 보내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장병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다. 힘든 신병교육대 훈련병 시절과 초임부사관, 장교 등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요즘 장병들은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 오지에 있는 철책선 근무 병사들에게는 책말고는 다른 정서안정재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랑의 독서카페 사업도 하고 있다. 많은 군장병들이 군생활 동안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제대 후 사찰에 찾아오는 이가 생겨난다면 이 또한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1:1

자매결연을 통해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 1987년 극단 ‘신시’를 창단해 문화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맘마미야’ 등 다양한 뮤지컬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극단이 됐는데 뿌듯하실 듯 합니다. 독립영화 후원 등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듯 합니다.

1980년대 중반 연극 ‘님의 침묵’을 공연했는데, 당시 함께한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모아 극단을 만들었다. 연극도 포교에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했다. 붓다TV나 (월간 붓다)도 마찬가지이다. 도심포교에서 극단을 만들고 인터넷TV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구룡사보>로 시작한 <월간 붓다>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현재 불교계는 많은 부분에서 시대흐름을 놓치고 있다. 단순히 수행과 전법하는 불교가 아니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그 효과를 맞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창건한 각 사찰의 회주로서 후학 양성에도 나서고 계십니다.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넘게 절에 살고 있으나 그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른 스님들의 큰 그늘에서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후학의 그늘이 되어주고 앞선 어른의 울타리가 되어 당신들의 업적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후대의 가르침으로 남기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대에 어른 스님이 없다는 말이 많다. 후학들의 잘못이다. 근현대 불교의 많은 어른을 조명하고, 또 우리들이 그 길을 따르기를 발원하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수행자여야 한다. 종교인이 직업이 돼서는 안된다. 하심하고 인욕해야 한다. 세익스피어도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고 했다. ‘죽음의 가치를 진정된 삶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너그러운을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승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 자신부터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불교 뿐만이 아닌 우리 시대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정우 스님은 대화 내내 승가는 화합을 우선하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흔히 사람들은 큰일을 앞두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한다. 하지만 수많은 불사를 이뤄낸 정우 스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모두를 위한 일이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를 극대화
-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 4 열 손실을 방지/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 5 황토 등 건조소재 사용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뜨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격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역사상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계품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위원회)
-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히 10-1386923호)
-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충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충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